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CONTENTS

1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 ❶ 자소서 of 정답찾기: '문제풀이'로 접근하라 06
- ❷ 내 학생부 복기: 지문 분석하기 10
- ❸ 자소서 문항의 의미: 문항분석과 출제의도 파악하기 17
- 부록: 대학별 평가기준과 자소서 문항 비교 22

2 오답 분석하기: 잘못된 자소서의 예

- ❶ 잘못된 소재 선정 26
- ❷ 잘못된 문항 이해 28
- ❸ 잘못된 표현과 과한 표현의 사용 33

3 연습하기: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제

- ❶ 두괄식으로 구성하기 38
- ❷ 문장의 길이 줄이기 40
- ❸ 분명한 어휘 사용하기 42
- ❹ 불필요한 성장과정 삭제하기 44
- ❺ 불필요한 경험담, 사건 중심적 서술 삭제하기 46

발행일 2020년 6월 11일

펴낸이 김형중

총괄 김병진

기획총괄 권혜미

기획연구 전구현, 권하은, 김희연

편집 권하은

펴낸곳 이투스교육(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47 (서초동 1354-3)

홈페이지 www.etoos.com

이메일 etoosacadem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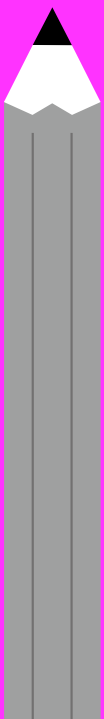
문의처 02) 400-4000

※ 이 책의 저작권은 이투스교육(주)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 임의 판매를 금합니다.

1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 ❶ 자소서 정답찾기: '문제풀이'로 접근하라
 - ❷ 내 학생부 복가: 지문 분석하기
 - ❸ 자소서 문항의 의미: 문항분석과 출제의도 파악하기
- 부록: 대학별 평가기준과 자소서 문항 비교



① 자소서 of 정답찾기: '문제풀이'로 접근하라

학생부가 '상품'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제품설명서'

'좋은 설명서'는 무엇인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상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래서 다른 제품이 아니라 이 상품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설명서가 상식적인 의미에서 좋은 설명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이 약간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자기소개서도 일종의 '설명서'에 가깝다.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한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 이 학생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학생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학생부를 통해 드러난 어떤 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나의 학생부 설명서'라는 맥락에 충실한 자기소개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설명서'로서 갖는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허위 과장광고가 없어야 한다.

상품을 왜곡하는 설명서는 좋은 설명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왜곡하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2 담백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써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써야 한다. 그러나 내 학생부만의 특별함을 강조하여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오만한 태도는 피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선발의 과정은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다. 자기소개서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형태의 글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발해야만 한다고 묵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읽는 사람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오타 등을 수정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포함하여, 강조하려는 자신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 자기소개서 그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즉, 자기소개서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100문 100답」 中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존재한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다. 학생마다 모두 다른 학교생활을 했고, 강조해야 하는 우수함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다른 제품의 설명서를 가져다 놓으면, 그 상품의 뛰어난 점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오래 사용해본다면 그 우수한 성능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학생을 지켜보지 않는다. 불과 몇 달, 제한된 요소만으로 학생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오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자기소개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글 모두가 해당된다.

1 목적을 잃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내 학생부의 보완재로서, 내 학생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에 가깝다. 단순히 자신의 신변잡기를 늘어놓은, 문자 그대로의 ‘자기 소개’ 글은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보완재 역할에 충실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된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한다.

2 소재를 잘못 선택한 자기소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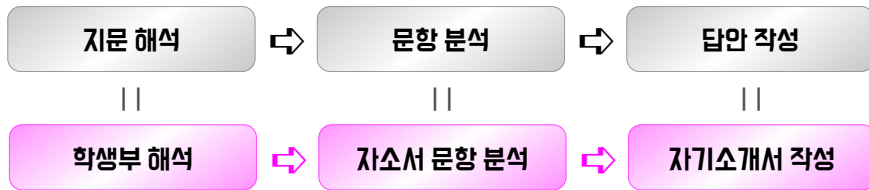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나의 학교 활동 중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서술해도 좋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소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교 행사 중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소재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역량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그 자기소개서는 ‘자기 소개’가 아니라 학교의 프로파일과 다를 것이 없다.

3 잘못 쓴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인 글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태이다. 자기소개서의 목적에 맞게,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읽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서라면 그것은 설명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글이다.

자기소개서는 '문제풀이'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자기소개서는 글쓰기가 아니라, '문제풀이'의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좋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와 '문항'을 이해하고 출제자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문에서 얻은 정보와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고민하여 답을 기재한다.



자기소개서에서 지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학교 활동이자 그 기록인 학교생활기록부이다.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꼼꼼히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 학생부와 학교생활을 꼼꼼히 복기해야 한다. 그래서 내 학교생활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들에게 '내 학생부를 이런 방향으로 읽어달라'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를 위해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학교활동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 학교 활동을 위해선 그 학교 활동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성장한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는 학생부를 꼼꼼히 복기하여 내 학생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항을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문항은 자소서의 문항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문항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문항'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과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문항을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들에서는 왜 이 문항을 지원자에게 요구하는지, 이 문항에 대한 답으로 학생들의 어떤 면면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선 두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문과 문항을 이해한다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글쓰기'에 대한 기술적인 연습도 일부 필요하다.

이 자기소개서 가이드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자신의 '학생부를 읽는 법'부터 시작하여,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고,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듯 잘못된 답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오답들을 확인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② 내 학생부 복기: 지문 분석하기

소재를 선별하라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 실력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음식에 사용될 식재료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재료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가공되지 않은 재료 본연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 재료는 어떤 조미료와 음료를 만났을 때 궁합이 좋고, 어떤 방식으로 익히는 게 최상의 맛을 내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요리하는 방식과 최종적인 결과물의 차이를 만든다. 즉, 각 재료에서 어떤 부분을 특징적으로 강조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좋은 자기소개서 역시 마찬가지다. 내 자기소개서의 기반 자료가 되는 자신의 ‘학생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학생부는 나의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내 학생부를 이해한다는 뜻은 내 학교생활 전반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내가 한 활동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까 싶지만, 자신이 수행해 온 모든 학교 활동에서 자신만의 목적성을 갖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때로는 하기 싫었지만 강제로 차출된 활동도 있을 것이고, 별 생각 없이 친구들 손에 이끌려 해본 활동들도 있었을 것이다. 즉,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는 내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할 만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만의 활동들을 선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무언가 거창해 보이는 활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활동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자료다. 즉, 자기소개서의 평가 방식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나만의 활동'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 해석하자면 '자기주도성'과 '연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학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수동적인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히 삶을 수행해 온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Q & A

이투스 수시 합격 장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

Q.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충실한 학교생활과 진로 계획이 필요해요! (건양대 의학과 박00)

1학년 때부터 명확한 진로 계획을 가진 친구들은 별로 없을거예요. 처음부터 진학하려는 학과와 완벽하게 관련있는 활동들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조금이라도 진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보면 나중에 진로와 활동을 연관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거예요!

■ 지난 비교과 활동을 정리, 작성 후에 학교 선생님께 첨삭수정을 요청드려보세요!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박00)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본인이 했던 비교과 활동을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런 후에 친구나 담임 선생님,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아보며 수정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 너무 촉박하지 않게 미리 고민하고 써보는게 좋아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송00)

저는 글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미리 고민하고 써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약간 촉박하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공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평소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목표 학과를 가고 싶은 이유들을 진지하게 미리 생각해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재 선별법 1 - “능동적인 활동을 찾아라”

하지만 나의 고등학교 3년을 모두 온전히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아주 큰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이 있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잊어먹기 마련이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했던 활동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나의 학생부를 ‘잘 읽어야’ 한다. 학생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했던 활동들을 어느 정도는 추릴 수 있다.

▣ 학생 A의 학교생활기록부(예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국어II	(...) 국어 과목에 관심이 많고, 독서 과정에 관여하는 독서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독서를 효과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학생임. 독서 목적에 맞추어 독서를 한 후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PPT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글 이야기(홍윤표)’를 읽고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 정리하는 보고서를 씀.

학생 A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힌 내용은 이 학생의 우수한 역량과 이에 대한 담당 과목 선생님의 긍정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이 든다. 수업 시간에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성장하는 과정도 일견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제’라는 형태의 출발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 학생이 작성한 발표 자료와 보고서는 아주 훌륭한 완성도를 가진 것이겠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이 과제물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보이지 않는다. 우수한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과제물들일 것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에 ‘적극적’ 또는 ‘자기주도적’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것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된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자체로 좋은 학생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해마다 수백, 수천의 학생부를 확인하는 입학사정관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담당 교사의 립 서비스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학생의 어떤 활동이 정말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지는 명시된 단어가 아니라, 학생부의 전체 맥락을 보고 파악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수성과 적극성을 보인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재 선별법 2 - “평가자를 궁금하게 하라”

▶ 학생 A의 학교생활기록부(예시)

학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2	(언어학탐구△△△: 자율동아리)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풀어 쓴 언어학 개론’을 읽고 연구한 결과를 동아리 부원들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고 연구 결과를 PPT로 발표함. OO재활원의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여 언어치료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언어학을 실생활에 접목해보려고 노력함.

위와 같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은 이 학생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갖고 한 활동이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다.

이 학생부 기재 내용은 능동성 외에도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강점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이 학생 A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언어학을 실생활에 접목해보려는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였을까’ 등 해당 내용을 통해 알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학생부는 선생님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학생의 활동이다.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겪은 내적인 변화를 모두 기재할 수는 없다. 특정한 활동을 하나의 현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고, 분량의 제한과 양식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보완재이자 설명서이다. 제품을 뜯어 이것저것 만져보고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설명서를 읽어보고 다시 작동해보아야 한다. 때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좋은 기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만을 보고서는 몰랐던 학생의 성장과 우수한 역량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읽고 나서 해당 학생부를 다시 읽어본다면, 이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면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소재 선별법 3 -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을 고려하라”

▣ 학생 A의 학교생활기록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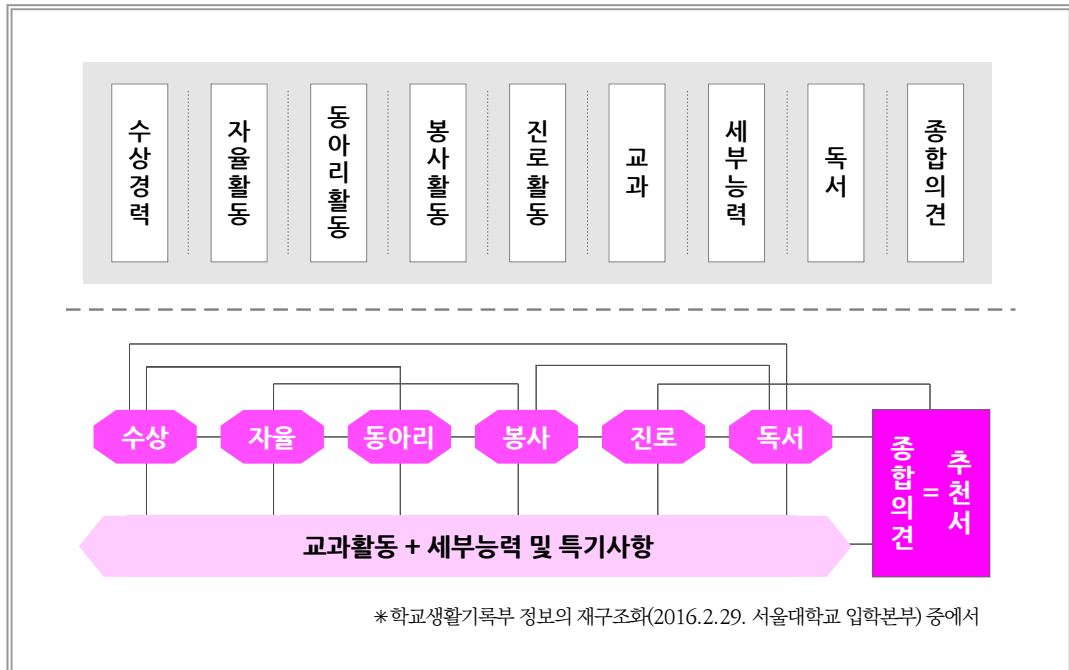
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2	(...) 인체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하고자 생명과학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심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탐구함. EKG(심전도관독법)를 활용하여 자신의 몸에 직접 전극을 붙여 숨을 오랫동안 참아보며 심전도를 측정하였음. 숨을 오랫동안 참았을 때 PR간격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전도에 관련된 논문을 수합하여 조사 해본 결과, 숨을 참게 되면 흉부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심장박동수가 느려진 것임을 밝혀내었음. 또한, 다시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항상성 유지의 개념을 응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현상을 보고 원인을 유추해내는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음.

위의 예시도 마찬가지다. 만약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면접을 통해 평가자가 묻고 싶은 내용도 눈에 보인다. 그러나 평가자가 면접으로 묻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먼저 알 수 있다면, 면접에서는 더 심화된 질문을 나에게 던질 것이다.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보여줄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된다.

자기소개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평가서류가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틀 안에서 활용되는 자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자기소개서의 평가 범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항목인 **학업역량/인성/발전가능성/전공적합성** 등의 대표적 평가요소와 이 하위 항목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 학생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관계짓기 어려운 활동들은 과감하게 배제해도 무방하다. 물론 어느 활동이든 학생부종합전형에 맞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평가요소와의 관계성이 더 짙은 활동을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 학생부 복기하기 - “학종의 평가요소를 고려하라”

내 학생부를 복기하는 작업은 이런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나만의 역량은 무엇이고, 그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나만의 소재를 선별해야 한다. 나아가 학생부의 병렬적으로 나열된 여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도 필요하다.



단순하게 나의 활동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활동들에 나 스스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 후 나는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학생부 기록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각 활동의 연계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통해 이미 연계성이 확보된 활동이라면 그것을 더 강화할지, 또는 연계성이 부족하여 전체 학생부의 맥락에서 붕 떠버린 듯한 활동을 나의 전체 학교생활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며 올리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소재 선별 연습하기

▣ 학교활동 요약하기 - 자기소개서 소재 선별 예시

종 류	내 용
수상경력	(1학년) 수학경시대회 우수상, 수학/과학 교과우수상 (2학년) 우수 동아리 선발대회 대상, 모의 토론대회 금상
동아리활동	(정규동아리) 언어학탐구 동아리 △△△ (정규동아리) 모의토론 동아리 ★★★★★ (자율동아리) 필름사진 동아리 □□□□ (자율동아리) 야구 통계 동아리 ◆◆◆
수행평가 (과제 및 보고서)	(수학-확률과 통계) '실제 생활에서 통계의 활용'이라는 주제의 과제에서 야구의 '세이버매트릭스'와 '머니볼 이론'을 소개. 세특에서 해당 내용이 부각되고 있으며 탐구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 있음.
진로활동	(...)
독서활동	(...)
(...)	(...)

이렇게 내 학교 활동 중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수상내역이라면 모든 수상내역을 적지 말고, 본인이 준비 과정을 기억할 수 있거나 특별히 자신의 성장에 의미가 있었던 수상내역만으로 추려서 리스트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부의 내용 중 과목별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기재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는 각 선생님의 시각에서 본 나의 모습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 좋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부분'이 도드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핵심 내용들을 꼭 요약하고 나열한 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일치하는 부분, 또는 내가 스스로 내 역량을 막힘없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③ 자소서 문항의 의미: 문항 분석과 출제 의도 파악하기

좋은 소재 선별하기 - “자소서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라”

앞서 말했듯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재를 선별해야 한다. **적절한 소재의 일차적인 원칙은 1) 능동적이며 2) 학생부 기재 내역으로는 온전히 확인할 수 없는 3) 평가자가 궁금해할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문항이 없는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서라면 이 원칙에 준하는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에는 주어진 문항이 있다. 모든 문제에는 출제자가 의도한 답이 있다. 객관식 문제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제자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즉, 첫 번째 원칙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문항과 관계없는 자기소개서는 결코 잘 쓴 자기소개서라 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각각 학생부 특정 영역에 대한 학생의 추가적인 기술을 요구한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는 작성지침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내용과 영역, 표현 방식이 꽤나 보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문항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1번 문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묻고 있다.

‘학업’, ‘노력’, ‘학습 경험’과 같은 단어들을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로 치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학업역량’, ‘성실성’, ‘학교생활 충실도’ ‘진공관련 학습역량’, ‘학습태도’, ‘탐구 능력’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항목들은 내 학생부 어느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을까?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주요 테마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학생부 기재 위치
학업	학업역량	교과학습발달사항
노력	학교생활 충실도	수상경력
학습 경험	탐구 능력	세부능력 특기사항
	학습태도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본적으로 1번 문항의 소재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학업 역량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에서도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교내 대회 등에서 그 소재를 찾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이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동아리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에서 더 적합한 소재를 찾을 수 있다면 해당 영역의 소재를 차용하여도 무방하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교내 활동은 대부분 학생부에 그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본인이 ‘배우고 느낀’ 것이 있는 활동을 충분히 설명하며 써주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내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다. 즉, 앞서 길게 설명한 소재 선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문항이기도 하다.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다’ 또는 ‘느꼈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그 활동 이후의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서술이 되어야 한다.

또한 2번 문항은 ‘교내 활동’이라는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내 활동은 학업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지만, 인성의 영역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활동도 많이 있다. ‘3개 이내’로 기술할 수 있으므로, 소재와 분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으로 인성과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번 문항에서도 충분한 비중을 두고 기술하여야 한다. 3개의 소재를 선정한다면 한 소재당 500자 정도밖에 기술할 수 없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2개 정도의 소재만 선정한다면 충분하고, 이 2개의 소재를 학업적인 소재와 인성적인 소재로 나누어 적절히 분량을 안배하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		
주요 테마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학생부 기재 위치
학업적 성장 인성적 성장	평가항목 전체	학생부 전체

2번 문항은 이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통해 학생의 ‘발전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하는 것이다. 2번 문항의 소재는 지적 호기심, 적극성과 실천성, 의지, 주제 선정 노력, 가치관의 형성과 실천 등 다양한 학업 이외의 능력들을 부각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선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주요 테마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학생부 기재 위치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인성 발전가능성 문제해결능력 경험의 다양성 의사소통 능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3번 문항은 굳이 '교내활동'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충족하는 것은 외부 기관의 봉사활동 외에는 없을 수도 있다.

3번 문항은 크게 보아 '배려'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고전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성품'과 관련한 내용과, '갈등관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의사소통 능력' 곧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둘 중 한 가지가 2번 문항에서 표현되었다면 3번에서는 다른 한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학생의 성품적인 우수성보다는 '공동체 역량'이 다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3번 문항은 단순한 '성품'의 차원이 아닌 협력과 협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대학별 문항에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소위 '대학별 문항'이라고 부르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각 대학들이 기본 3개 문항 외에 추가로 묻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항은 각 대학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한 적지 않은 힌트를 담고 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2017·2018학년도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中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4번 문항에서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대는 독서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제시한 4번 문항의 의미를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나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수시 모집요강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문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문항에 대한 해당 대학의 설명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대학별 평가기준과 자소서 문항 비교 (15개 대학 기준)

앞서 짚어보았던 자기소개서 1~3번 문항의 출제자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였다면, 마지막 4번 문항은 대학이 출제자가 되어 자유롭게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 평가한다.

그렇다면 대학별 자율문항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항을 통해 대학이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지, 해당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자.

먼저 각 대학별 자율문항의 핵심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기준

문항에서 요구하는 기술 사항	해당 대학명	글자 수
지원동기 +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과정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1,500자 이내
전공 선택 이유 + 학업 계획 or 진로계획	서강대	1,000자 이내
지원동기 + 학업 계획 + 진로계획	홍익대 (*2020 수시 기준)	1,500자 이내
지원동기 + 진로계획 (학부 · 과 인재상 고려하여)	서울시립대	1,000자 이내
지원동기 + 선발해야만 하는 이유	고려대	1,000자 이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3권 선정과 그 이유	서울대	이유 500자 이내

※기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자율문항 없음), 한양대(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음)

※홍익대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나 아직 '2021 수시모집 제출서류 양식' 게재 전이므로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서류양식이 공식 게재된 이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이 기본적으로 해당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또는 선택 이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해당 학과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지원의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원동기와 함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건국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과정, 노력'을 기술한다. 이는 1~3번 문항에서 썼던 것 외에도 본인이 학과 지원을 위해서 실천했던 것 중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추가로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여러 측면들이 평가될 수 있다.

대학 진학 후 '학업계획', '진로계획' 기술은 지원자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서강대 2019 입학가이드북 내용 중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언급한 부분을 보면 '대학은 학문(學文)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원자가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에 자율문항에서도 이미 진행해 왔던 활동들이 아닌, 대학 진학 후 어떻게 학업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또는 미래에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수시 모집요강상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준거로 '학부·과에서 제시한 인재상을 중심으로 대학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고교 생활의 노력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점이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구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는 지원동기를 비롯하여 대학이 '지원자를 선발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자신이 가진 우수성을 드러내되, 되도록 고려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상에 부합하는 역량들을 부각시킨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해왔던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확고한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목표, 계획들도 중점적으로 기술해보도록 하자.

서울대는 학종 안내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이다', '서울대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이다'.

이와 같은 선발 기준을 가진 서울대는 타 대학들의 학과 지원 동기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원자가 읽은 책과 거기에 담긴 그의 경험과 생각, 변화에 귀 기울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하려는 학과와의 관련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미있었던 책을 잘 선정하여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생각을 표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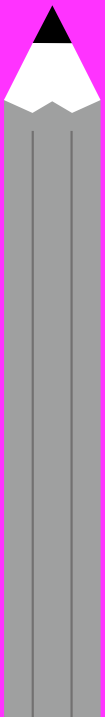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1~4번까지 각 항목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번 공통문항까지 읽고 알게 된 학생의 모습이 갑자기 4번 문항에서 다른 모습으로 낯설게 느껴져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자기소개서 전체를 다 읽었을 때, 평가자가 '이 학생은 ~~한 역량을 지닌 학생이다'라는 연관된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이 점을 잘 상기하며 1~3번 문항에 자신이 썼던 내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서 4번 문항을 기술한다면 바람직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답 분석하기:

잘못된 자소서의 예

- ❶ 잘못된 소재 선정
- ❷ 잘못된 문항 이해
- ❸ 잘못된 표현과 과한 표현의 사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예

앞서 설명했듯 모두의 학생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히 오답은 존재한다. 실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중, 오답에 가까운 자기소개서를 소개한다. 이 자기소개서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구상해보도록 하자.

1. 잘못된 소재 선정

2 번 문항

#E대 사이버보안학과

(...) 1학년 때 '여고생의 색조화장품과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유해성 및 단점 인식의 실태'라는 주제로 논문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저희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제, 탐구 배경과 목적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와 저희의 탐구를 견주며 방향성, 차별성을 찾아가는 단계부터 막혔습니다. 마침내 제품의 유해성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대상을 저희학교 학생으로 한정하며 최종목표를 저희 팀의 연구문제에 문외한인 학생들을 계몽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내놓은 여러 실험 계획의 목표 부합성을 따져보고 추리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본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공식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평소의 외향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긴장으로 인해 발표를 그르쳤던 중학교 때의 경험 이래 발표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과정 중에도 긴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계속해서 검토하며,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 시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실전에 임할 수 있었고 맑은 바를 완수했으며, 이후의 발표불안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 탐구하고 결과를 분석해본 첫 경험이었기에 보람 있었고, 막연했던 시작에서 이루어낸 결과물로 인정받은 뿌듯한 일입니다.

위 학생은 사이버보안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다. 한 눈에 보기에 지원 전공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했다.

[그림] E대 홈페이지 사이버보안학과 소개글

■ 소개

최근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접목되면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보안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ICT에 관련된 다양한 융합 산업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현실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교육된 전문보안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이버보안전공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컴퓨터공학 기반지식을 바탕으로 ICT 및 다양한 융합산업분야의 보안기술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체계적 교육 수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국내외 보안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이 훌륭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오랜 역사를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컴퓨터공학의 다양한 연구분야에 보안을 접목함으로써 탁월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여 전문지식의 체계적 교육, 실무 능력 함양, 산학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여성으로서 리더십을 갖춘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해당 전공 소개를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 소재와의 괴리가 더욱 두드러진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꼭 지원 전공과의 접점이 있는 소재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동떨어진 소재라면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이 학생의 자소서 내용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저 학생이 서술한 배우고 느낀 경험이 저 프로젝트 주제에만 대응하지는 않기에 해당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불분명하게 다가온다. 쉽게 표현하면, 꼭 이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장이 채워졌다는 뜻이다. 보고서 프로젝트 같은 활동을 자기소개서 소재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주제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번 문항

#K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학년 독서 수행평가 때 절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에게 그 책이 있어 자료를 준비해가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평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 때가 되면 공책이나 책을 빌려 달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빌려준 공책과 책을 제가 필요할 때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적도 있었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가 자료 때문에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망설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배려에 고마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배려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

친구들에게 노트 필기를 빌려주는 것이 3번 문항의 주제에 맞는 소재였을까? 평가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은 3번 문항에 맞는 소재 자체를 찾지 못해 억지로 쓰인 자소서라는 느낌을 주게 한다.

2. 잘못된 문항 이해

1번 문항 - ①

#K대 생명과학부

(...)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정리해 보고, 틀린 문제는 왜 그랬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풀지와 같은 복습과 반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실천한 대표적인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공부에서 개념, 문제풀이, 복습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노력했습니다. 미적분의 개념들은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들과 여러 번 반복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복습을 위해 오답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답노트에는 틀린 문제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조건들, 조건들의 연결 관계, 문제를 푸는 순서들을 적었습니다. 개념들과 문제풀이가 연결되어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미적분의 개념이 문제풀이의 방향을 지시하고, 문제풀이가 개념을 더 깊이 이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운 것을 돌이켜보고, 성공했던 문제풀이와 실패했던 문제풀이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하나씩 좀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한 것에 대해 돌이켜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오답을 통해 더 많은 학습을 하는 공부법을 찾았고, 공부법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복하는 실수 중 하나로, 1번 문항을 작성함에 있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공부법을 소개하려면 그 공부법의 변화가 아니라, 공부법으로 인해 달라진 학업적 성장, 즉 앞의 변화와 태도 및 마음의 변화, 그로 인한 효과를 다뤄야 한다.

1번 문항 - ②

#E대 문헌정보학과

(...) 때문에 제가 진정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목표만 장황하게 써놓고 정작 지키지 못하는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느낄 수 없었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계획이 계속 밀려 실행은 못 하고 쌓여가기만 하는 공부량에 스트레스만 더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짤 때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설정하여 공부하고, 후에 목표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조금씩 계획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한 양에 맞게 요일별로 과목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계획을 점차 월별, 학기별, 연도별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늘려가다 보니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고, 저만의 플래너 작성법을 완성하였습니다. 플래너 작성이 익숙해지고 나니 수업에 집중해야 할 이유도, 복습을 해야 할 이유도 명확해지게 되었고, 평소 소비하던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지적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이후 학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학생부의 교과와 관계된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 등을 통해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과 발전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번 문항 - ①

#S대 컴퓨터공학과

저희 학교는 상대적으로 물리에 대한 관심이 덜한 여고였기 때문에 물리 심화 탐구의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책이 알려주는 개념 및 원리도 유용했지만 실습을 통해 물리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 교내 다목적실에서 스터디 형식으로 서로의 학습활동을 공유하며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 저와 같은 아쉬움을 느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맡은 물리실험 사전 조사를 토대로 함께 연간 계획을 세우고, 담당 선생님 섭외와 부원 모집을 거쳐 물리동아리를 신설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활동이었으며 개설에 저의 노력이 직접 들어간 동아리였기에, 부원으로서 열의가 있어 실험 조장에 지원하게 되었고, 실험 설계 및 실험보고서 작성과 후배 조원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내활동을 통해 얻은 성장의 경험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이라는 표현에 집착해, 활동 그 자체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위 사례는 그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와 준비에만 집중한 나머지 활동의 내역이나 경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2 번 문항 - ②

#I대 기계공학과

로봇동아리에서는 LEGO의 MINDSTORM이라는 로봇 키트를 사용해 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등의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밍 툴 Scratch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익힌 후에 오픈소스 마이크로컨트롤러인 아두이노와 광 다이오드, 스피커 등을 이용한 회로를 직접 구상하고 연결한 뒤 회로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래밍과 회로 구성의 기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는 별개로 스스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와 프로그래밍 학습서를 보고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와 C#을 학습했습니다. 책과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얻은 함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작성해보면서 학습한 결과 계산기와 번호 추첨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왜’와 ‘그래서’에 해당하는 내용 없이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 핵심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공부했는지와 하고 나니 ‘무엇이 하고 싶어졌다’에 있다.

3 번 문항 - ①

#K대 경영학과

(...)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명확한 나의 꿈은 집착으로 변했다. 최고가 되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왔던 나였기 때문에 1등급이 아닌 나의 학교 성적은 고통 그 자체였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철저히 무시했던 순간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병과 동시에 오른손잡이였던 내게 오른손이 부러지는 고난이 찾아왔다. 눈을 뜨면 학교가 아닌 병원에 갔고, 등교를 하면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향했다. 담임선생님께 병원 진료서를 내려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어차피 한 번쯤 부러져야 할 팔이었다면 때가 고3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수능이 끝나고 팔을 다치지 않아도 실패할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선의 과정 없이 최고가 되려고 했던 욕심의 결과는 실패이기 때문이다. 고3이라는 시간을 통해 내가 집착하고 있던 건 꿈이 아니라 참 어리석게도 '최고'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꿈이 있었기에 최선을 이뤄왔던 고1의 나, 고2의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자신과의 갈등을 통해 '최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과제는 최선의 연속을 통해 최고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학생의 자소서 3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관리'라는 문구에 기본을 두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듯 보이지만, 그러한 갈등관리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생활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역량'을 보고자 하는 문항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온 오류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미진하며, 배려/나눔/협력이라는 주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3 번 문항 - ②

#K대 한의예과

(...)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모두에게 살갑게 대하여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미소가 어려 있었던 얼굴엔 불안만이 있었고, 남에게 더는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모습이 조금 무서웠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눈망울을 똑바로 보고 나서, 이대로 있으면 정말 나락까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힘든지, 지금 왜 그러는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해 주었고, 울고 있을 때면 웃게 해 주었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인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배려/나눔/협력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도움의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로 작성을 하고 싶었다면, 정신의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통해 일어난 갈등 사건과 그 갈등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번 문항

- 대학별 문항: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

#K대 서어서문학과

‘국가 사이에 상품이 흘러가지 않으면 탱크가 굴러간다.’ 직업 인터뷰 중 무역의 필요성을 묻는 저의 질문에 대한 김의기 전 WTO 참사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국제무역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경영과 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국제통상전문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개 무역은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소비 자체가 비물질화되고 문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의 상품화가 대두되었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화를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천박한 생각일 수 있지만, 한국문화도 상품화되었을 때 외국인들에게 이윤 확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어 시간에 학교 선생님께서는 스페인어권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교역을 시도하고 진출할 몇 안 남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정시에서 유의미한 입시 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 지원에서도 학과별 위계를 고려하지만, 수시모집은 그런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다. 다소 경쟁률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단위라 할지라도, 본인의 학생부와 진로희망 등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위 학생은 한눈에 보기에다 상경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지원하였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즉, ‘왜 서어서문학과여야만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본인의 진로희망과 꼭 맞는 전공에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학생처럼 스페인어권 경영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서어서문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의 전공도 결국 자신의 진로희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발하는 학과의 교수 입장에서는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다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학을 배우는 학과다. ‘문학’과 ‘경영전문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다소 낯설다. 이런 경우 차라리 스페인어학과나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또는 커리큘럼상으로 문학의 비중이 낮은 타 대학의 ‘유럽문화학과’ 등을 고려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또는 정치외교학과 등에 지원해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쪽의 정세를 공부하고 싶다는 쪽으로 구상하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 학생들은 ‘어문계열’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어문학과’는 그 언어와 해당 언어로 쓰인 ‘문학’을 공부하는 전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잘못된 표현과 과한 표현의 사용

1번 문항

#K대 영어영문학과

저는 유년 시절 조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복무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소년인 저와 여행을 하시며 많은 인생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단둥이 백두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월남 파병 시절 이야기,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학업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군 복무와 공부를 병행하신 일화 등등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많은 인생 굴곡에 대해 세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위 도입부 내용은 1번 문항에 쓰여서는 안 되는 주제임은 물론, 자소서 전반적으로 필요가 없는 말이다.

3번 문항

#S대 환경공학부

2학년 학급회장을 맡은 것은 제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는 힘을 높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대해 미처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친구가 중요한 진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내가 학급을 대표하게 되어 반의 일을 내 일처럼 신경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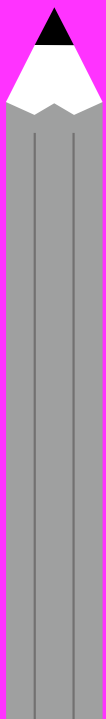
실제로 이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소서에 저런 문장을 쓸 필요도 없으며 써서도 안 된다. 저 문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저런 표현은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특정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환경으로 돌리는 학생에게, 평가관들은 어느 정도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3

연습하기: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제

- ❶ 두괄식으로 구성하기
- ❷ 문장의 길이 줄이기
- ❸ 분명한 어휘 사용하기
- ❹ 불필요한 성장과정 삭제하기
- ❺ 불필요한 경험담, 사건 중심적 서술 삭제하기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제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작문 실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글은 아니다. 즉, 수려한 글쓰기 실력이 있어야만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역시 하나의 완결된 '글'이다. 즉, '글'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완성도는 갖추어야 한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이나 문단의 구성 등이 그것이다. 이 정도는 학교 국어 시간에 성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맞춤법 교정기 같은 프로그램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특수성에 맞는 글쓰기 능력이다. 시나 소설을 쓰듯이 자기소개서를 써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글이다. **명확한 단어와 명확한 문장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형식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여 함께 연습해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 외에도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가 가진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다.**

1. 두괄식으로 구성하기

평가자들은 다양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 만큼, 읽는 이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글쓰기도 자기소개서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그렇기에 자기소개서는 미괄식이 아닌 두괄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이기 때문에 B이다”라는 식의 구성보다는 “B이다. 그 이유는 A이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 다음은 실제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사례이다. 아주 나쁘지는 않은 자기소개서이지만 보자마자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내용이 가장 전면 배치되도록 ‘두괄식’으로 재구성해보자.

| 예제 |

1학년부터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수학문제를 푸는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학년 때 기숙사에서 그 모임을 금요일마다 모여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인 Friday Study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 친구와 전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듯했습니다. 함께 설명을 맡은 친구만이 이해할 뿐 다른 친구들은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에 출제된 극한 문제를 설명할 때 풀이과정에서 당연하다 생각된 것들을 생략하자, 친구들은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이 설명을 담당하는 친구가 보충을 해주어야만 했고, 친구들이 ‘저렇게 유도과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야지.’라고 저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생략한 부분이 문제란 것을 깨닫게 된 저는 암산으로만 해결하는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 기본 개념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이과정과 적용되는 공식을 검산하듯이 생략하지 않고 하나하나 종이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중에 문제와 관련된 의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흥미가 생기면 공식을 찾아 공부하면서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암산으로 했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중간에 또 다시 생략하거나 아예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세히 풀이과정을 적을 수 있게 되었고, 설명이 익숙해지면서 친구들은 제 설명을 이전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문장의 길이 줄이기

우리가 말을 하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글을 읽는 것에도 숨을 쉬는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이런 숨을 쉬는 공간이 많을수록 그 글은 담백하고 읽기 쉬운 글이 된다. 읽는 이가 피로하지 않을 수 있는 글을 위해서는,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음은 한 학생의 실제 자기소개서 사례이다. 이 학생이 생각하는 바는 알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를 읽기 쉬운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연습을 해보자. 이 연습은 꼭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가지고 해 보아도 좋다.

| 예제 |

우리나라는 대부분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쏠려있어 실제로 2016 리우 올림픽 비인기 종목 금메달리스트를 축하하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인기스포츠와 비인기스포츠의 차이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고 비인기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인기스포츠의 경우 스포츠 광고가 인기스포츠에 관한 광고가 대부분이며 인기스포츠를 지원하는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비인기 스포츠의 경우 비인기스포츠를 홍보할 만한 광고도 거의 없었으며 비인기스포츠를 지원하는 시장의 규모가 작거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방송사의 입장에서 비인기스포츠는 시청자의 관심이 적어 시청률이 적게 나와 인기스포츠에 비해 편성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사 간의 협약을 통해 스포츠 채널만큼은 비인기 스포츠에 관한 편성 시간 조절이나 광고를 늘려 시청자에게 시각적인 노출을 많이 시켜 주고 비인기스포츠를 위한 스포츠 시장을 확장하여 관심을 유발하여 인기스포츠와 비인기스포츠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모든 스포츠를 골고루 방송하여 시청자들이 비인기 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비인기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분명한 어휘 사용하기

같은 맥락에서,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은 자기소개서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자기소개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명한 어휘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리운 맛’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맛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한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례뿐 아니라, 상술한 ‘외국인에게 한식을 설명해주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습해보아도 좋다.

☞ 다음은 한 학생의 실제 자기소개서 사례이다.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대충 느낌은 오지만, 더 명확한 표현으로 재구성해보자.

| 예제 |

평소 의학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흥미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갑작스러운 암 재발, 전이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부작용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에 지친 엄마의 모습에 약물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암 치료방식의 한계를 느꼈고, 부작용을 줄이는 의료적 노력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엄마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절실하게 의료인이 되겠다는 뜻을 품고 의지를 다잡아왔습니다. (...)

천석고향, 퇴계는 이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병이 깊다는 말로 썼지만, 저는 엄마의 고향과 같은 암으로 인해 천석의 아름다움을 사랑해볼 겨를도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향’의 깊은 병을 다시 ‘천석고향’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한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00대 한의예과에 진학하여 제가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따뜻한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4. 불필요한 성장과정 삭제하기

자기소개서에는 분량 제한이 있지만, 그 분량을 모두 꼭 채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1,000자짜리 자소서보다,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는 600자 자소서가 더 좋은 자기소개서일 수 있다. 평가자들은 학생의 가족관계 등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 다음은 실제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사례이다. 이 학생의 서술 중 자신의 가족관계나 배경에 관한 내용은 최소화하여, 이 학생 중심의 자기소개서로 다시 작성해보자.

| 예제 |

저는 유년 시절 조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복무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소년인 저와 여행을 하시며 많은 인생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단둥이 백두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월남 파병 시절 이야기,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했던 학업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군 복무와 공부를 병행하신 일화 등등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많은 인생 굴곡에 대해 세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묵묵히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통해 겸손과 성실함, 그리고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겸허히 그 결과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제게 가르쳐주셨고 이에 저는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고교 시절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어리지만 가족과 가정을 지키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크고 작은 난관은 있었지만 굳은 의지와 실천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2학년으로 올라가서는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자신의 의지와 굳은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고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입소가 허용되는 학교 기숙사에 당당히 입사하여 단체생활을 했습니다. 호실 방장에 선출되어 술선수범의 자세로 학우들을 도왔고, 친구들과 함께 영어, 수학 스터디그룹과 시사동아리 소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활동하며,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등 함께 실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향상은 물론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학습과 생활을 통해 교류하면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와 유연한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한 학생이 많은 외고에서 유학파 친구들에 비해 영어 실력이 부족함을 느껴, 실력향상을 위해 썸머 캠프 도우미로 활동하고 'a△△△ s△△△△△'이라는 영어 토론반에 참여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보조 교사로서 중학생 대상의 교구와 학습자료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원어민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의 입장에서 알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많은 고충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은 배움에 더욱 정진하고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력향상은 물론 술선하여 적극 참여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효과를 낳아 소속 구성원을 다 함께 아우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이끌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불필요한 경험담, 사건 중심적 서술 삭제하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내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더 극대화해야 한다. 앞선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자들은 학생의 ‘활동’ 그 자체가 궁금하지 않다.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가 궁금하다.

☞ 다음은 실제 한 학생의 자기소개서 사례이다. 이 학생의 서술 중, 활동 중심적인 내용은 최소화하여, 이 학생 중심의 자기소개서로 다시 작성해보자.

| 예제 |

로봇동아리에서는 LEGO의 MINDSTORM이라는 로봇 키트를 사용해 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등의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밍 툴 Scratch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익힌 후에 오픈소스 마이크로컨트롤러인 아두이노와 광 다이오드, 스피커 등을 이용한 회로를 직접 구상하고 연결한 뒤 회로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프로그래밍과 회로 구성의 기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는 별개로 스스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와 프로그래밍 학습서를 보고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와 C#을 학습했습니다. 책과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얻은 함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작성해보면서 학습한 결과 계산기와 번호 추첨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 활동들에서 습득한 지식은 제가 00대 기계공학과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발판이 되어 대학 교과과정의 이해를 도와 로봇의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꿈에 대한 제 열망은 달려나가는 것에 힘을 더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